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61



▶ 62회 예고

수시마 부왕비는 갓난아기 니그로다를 안고 천민촌으로 피신한다. 마침내 중병을 앓아오던 빈두사라왕이 죽는다. 수시마 부왕 편에 섰던 친위대장이 자살하고, 왕자 다섯 명은 살해된다. 아쇼까는 자연스럽게 마우리아왕국의 왕이 된다.

아쇼까, 부왕에게 왕권 넘겨받다

친위대 조장이 탁실라로 떠난 지 두 달을 넘기자, 가장 불안해하는 사람은 친위대장이었다. 수시마 부왕이 와야만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빈두사라왕에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물론 칼라따까 수상이나 라다굽따 제관도 친위대 조장을 초조하게 기다리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속셈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수시마 부왕이 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그래야만 아쇼까에게 기회가 생길 수 있어서였다.

빈두사라왕은 하루가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었다. 정궁 집무실에 보관하던 국새를 침전의 침실 머리맡에 갖다놓고 있을 정도였다. 왕권을 상징하는 것 중에 국새만한 것은 없었다. 국새를 보관한 조그만 상자 뚜껑에는 마우리아국 국조(國鳥)인 공작새 두 마리가 음각돼 있었다. 칼라따까나 라다굽따, 그리고 친위대장과 수시마 부왕비는 우두머리 궁중의원에게 매달렸다. 그가 진단하는 소견에 따라 일희일비했다. 그날도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빈두사라왕 침실에서 나오자, 침전 회랑에서 대기하고 있던 대신들이 우르르 몰려가 물었다.

"대왕님은 어떠시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오."

"아무 것도 드시지 못하시니 의원으로서 한계를 절감합니다."

"대왕님께서 의식이 분명하시다니 곧 일어나실 것 같소만 특단의 치료는 없는 것이오?"

"음식은 물론 물도 못 드신 지 보름도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정신이 맑으신 것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입니다."

우두머리 궁중의원은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음식과 물을 끊은 지 보름도 더 지났지만 마치 몸과 정신이 분리된 것처럼 빈두사라왕의 의식은 아직까지도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궁중의원이 급히 침전을 나간 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 친위대장은 침전에 딸린 다실에서 구수회의를 했다. 칼라따까가 말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오. 수시마 부왕께서 언제 빠딸리뿌뜨라에 도착할지 모르오. 그때까지 아쇼까 부왕이 왕권을 대리할 수 있도록 대왕님께 허락받는 것이 어떻겠소?"

"궁중의원이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소. 무슨 뜻이겠소? 만에 하나 왕권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니 칼라따까 수상님의 의견에 나는 동의하오."

칼라따까나 라다굽따가 왕위는 수시마 부왕이 잇도록 하되 잠시만 아쇼까 부왕에게 왕권을 맡기자고 하는 의견에 친위대장이 반대했다.

"수시마 부왕님께서 오늘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왕권을 아쇼까 부왕님께 잠시 넘긴다면 두 형제간의 우애를 깨뜨리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라따까가 친위대장을 설득했다.

"궁중의원의 말을 믿어야 하오. 그러니 단 하루라도 왕권의 공백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수시마 부왕님께서 빠딸리뿌뜨라에 오늘 내일 도착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이오."

"소장이 알기로는 대왕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대왕님의 뜻을 잘 알고 있소. 다만 수시마 부왕님의 도착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비하자는 것이지 대왕님의 뜻을 거스를 생각은 추호도 없소."

"소장은 여기서 뭐라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수상님께서 대왕님의 허락을 받으신다면 소장은 따르겠습니다."

"나를 믿어주니 고맙소. 나와 제관님이 대왕님을 알현해서 건의해 보겠소."

친위대장은 짜이를 마시지 않고 일어났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자 분하게 여기고는 다실을 나가버렸다. 그러나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짜이를 느긋하게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왕님 침실에 들어가 허락받는 일만 남았소."

그날 오후.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우두머리 궁중의원을 따라서 빈두사왕의 침실로 따라 들어갔다. 빈두사라왕은 탈진한 사람처럼 누운 채 꼼짝을 않고 있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가 가까이 다가가 신분을 밝히자 눈을 껌벅거렸다가 감았다.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말했다.

"대왕님께서는 두 분을 알아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보고 드려도 되겠소?"

"의식은 분명하시니 다 알아들으실 겁니다. 대왕님 귀에 대고 말씀하십시오."

칼라따까가 무릎을 꿇은 채 말했다.

"대왕님, 보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시마 부왕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수시마 부왕이란 말에 빈두사라왕이 눈을 떴다. 그러나 눈동자가 천정을 응시할 뿐 칼라따까를 보지는 않았다.

"다만 수시마 부왕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보고입니다. 수시마 부왕님이 오실 때까지 아쇼카 부왕이 대왕님 곁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다굽따도 한 마디 했다.

"수시마 부왕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제야 빈두사라왕이 두 사람을 확인하듯 바라보고는 고개를 좌우로 힘겹게 흔들었다. 허락한다는 뜻이었다. 그래도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빈두사라왕이 입으로 허락해주기를 기다렸다. 우두머리 궁중의원도 거들었다. 빈두사라왕의 팔을 주무르며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수상님과 제관님께 말씀하소서."

한참 만에 빈두사라왕이 분명한 발음으로 말했다.



"아쇼까를 믿는다. 수시마 형을 도울 것이라고..."

칼라따까는 준비해간 문서를 빈두사라왕에게 보여주었다. 그러자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빈두사라왕에게 읽어주라고 말했다.

"지금 대왕님께서는 문서를 보시기보다는 듣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요."

칼라따까가 문서를 또박또박 읽었다. 자신과 라다굽따가 작성한 문서에는 '이 시간 이후부터 수시마 부왕이 빠딸리뿌뜨라 왕궁에 올 때까지만 아쇼까 부왕이 빈두사라왕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마우리아왕국을 통치한다.' 라고 쓰여 있었다. 칼라따까가 문서를 다 읽고 나자, 빈두사라왕이 머리맡에 둔 작은 국새 상자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그러자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국새 상자를 들고 칼라따까에게 건네주었다. 그 순간 빈두사라왕의 눈가에는 눈물이 비쳤다. 우두머리 궁중의원이 얼른 다가가 빈두사라왕의 머리를 바르게 해주었다.

칼라따까는 국새를 꺼내들고 문서 끝에 찍었다. 이제 왕권은 아쇼까에게 넘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칼라따까와 라다굽따는 문서를 들고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달려갔다. 아쇼까에게 문서를 전해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아쇼까는 다르마 왕비별궁에 없었다. 동생 비가따쇼까를 데리고 강가강으로 나가 목욕을 하고 있었다.

한편, 친위대 조장 일행은 빠딸리뿌뜨라를 향해서 거침없이 달려오고 있었다. 웨살리까지 왔지만 친위대 조장은 왕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 것도 몰랐다. 웨살리는 빠딸리뿌뜨라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큰 도시였다. 친위대 조장 일행은 밤새 완고한 안개를 뚫고 달렸다.

"남서쪽으로 달려라!"

다음날 새벽. 친위대 조장 일행은 예정대로 빠딸리뿌뜨라에 입성했다. 친위대 조장은 외성 성문을 지나 내성으로 들어가 꾸날라를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보낸 뒤, 친위대 기병들은 내성 군막에서 푹 쉬게 하고 자신은 칼라따까 저택으로 갔다. 안개가 날벌레처럼 눈썹에 달라붙었다. 친위대 조장은 말에서 내려 잠입하듯 걸었다. 칼라따까 저택 2층은 불이 켜져 있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정문을 지키던 하인이 다가와 친위대 조장임을 알아보고는 문을 열어주었다.

"수상님은 어디 계신가?"

"2층에 계십니다."

친위대 조장은 하인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다. 발을 디딜 때마다 나무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칼라따까가 벌떡 일어나서 친위대 조장의 두 손을 맞잡았다. 칼라따까의 첫 일성은 수시마 부왕의 행방이었다.

"수시마 부왕님은 여전히 탁실라에 계시겠지?"

"아닙니다. 오시다가 급사하셨습니다. 아침으로 꾸날라 왕세자님과 공작새 커리를 드시고 난 뒤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꾸날라 왕세자님은 무사하신가?"

"이곳에 도착한 뒤 바로 다르마 왕비님 별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잘했네. 수시마 부왕님 시신은 어디에 있는가?"

"야무나강 상류에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드렸습니다."

"잘 했네. 그런데 꾸날라 왕세자님과 같은 커리를 드셨는데 어째서 수시마 부왕님만 돌아가셨다는 것인가?"

"탁실라 특사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했습니다."

"음, 그래서 특사는 내 복심 중에 복심이지."

칼라따까는 단 번에 직감하고는 오히려 친위대 조장에게 입단속을 지시했다.

"이 일을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네. 알겠는가?"

"제 입으로 말할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수상님. 이제 친위대장께 보고해야 합니다."

"대장은 항시 대왕님 침전에 있네. 어서 가보게. 나를 만났다는 말은 하지 말고."

"대장님은 바보같이 아직도 저를 믿고 있습니다."

친위대 조장이 야릇한 웃음을 흘리면서 일어났다. 직속상관인 친위대장에게 보고하는 것은 그의 직무였다. 장막 같은 안개 때문에 왕궁 안의 길들이 잠시 헷갈렸지만 친위대 조장은 곧 침전으로 향했다. 마침 침전 밖을 순시하고 있던 친위대장이 친위대 조장을 보고는 달려왔다.

"대장님, 방금 내성에 도착했습니다."

"수시마 부왕님은 아직 이곳에 오시지 않았는데?"

친위대 조장이 바로 대답하지 못하자 친위대장이 다그쳤다.

"사고인가?"

"예, 오시다가 옛 꾸루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있나."

친위대장은 한 동안 말을 못했다. 왜 돌아가셨는지, 시신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묻지 못했다. 당황한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얼마나 허둥대는지 허리에 차고 있는 칼이 이리 저리 흔들거렸다.

"대장님, 고정하십시오."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난 지금 다녀올 데가 있네."

친위대장이 급히 자리를 떴다. 친위대장이 달려간 곳은 수시마 부왕비가 사는 별궁이었다. 수시마 부왕이 죽었으니 부왕비의 운명도 어떻게 될지 몰랐다. 그렇다면 수시마의 아들 니그로다를 살려두어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친위대장은 수시마 부왕비와 갓난아기 니그로다가 살아남으려면 외성 밖의 천민촌에 숨어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판단이 들자 친위대장의 마음은 더 조급해졌다. 친위대장은 말을 타고 수시마 부왕비 별궁으로 달렸다. 몰려오는 안개 때문에 말발굽 소리가 더 크고 길게 공명했다.〈계속〉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